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하길 바라지 말라
순종해주면 마음이 교만해지나니
뜻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숲을 삼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8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5월 3일) 2022년 6월 1일 수요일



조계종은 5월 21일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대웅보전 준공식을 거행했다. 분황사는 부처님 성도지인 부다가야에 처음으로 건립된 한국사찰로, 백만원력결집불사의 첫 결실이다.

印 분황사 대웅보전 낙성…백만원력불사 결실

조계종, 5월 21일 부다가야서 준공식 봉행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대표단 비롯
물라상가 붓다팔라 스님 등 500여 명
전국비구니회 운영지원 보건소 착공도

인도 부다가야=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36대 집행부가 핵심사업으로 백만원력결집불사를 선포한 지 4년만에 부처님 성도지인 인도 부다가야에서 첫 결실을 맺었다. 부처님 성지를 참배하는 한국불자들의 수행 · 순례 구심점이 될 한국사찰 분황사가 대웅보전 건립을 마무리하고 한국 불자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5월 21일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대웅보전 앞마당에서 대웅보전 준공식을 거행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해 산문을 연 한국사찰 분황사 대웅보전의 낙성을 축하했다. 한국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해외특별교구장 정우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과 분황사 건립불사에 원력을 보탠 불자 등 150명이 참석했다. 또 인도에서는 물라상가 대표 붓다팔라 스님과 세계불교도연맹 IBC 회장 담마삐아 반떼, 장재복 주인도한국대사와 인도 정부와 비하르주 관계자, 인도 현지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대거 동참했다.

분황사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오랜 원력에서 출발한 불사다. 35년 전 인도 성지순례에서 부다가야에 한국사찰을 건립하겠다는 서원에 따른 것이다. 당시 부다가야 마하보디 대탑을 중심으로 전세계 불교가 자국사찰을 건립해 불교문화 선양과 참배객 수행처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한국사찰은 전무했다. 이에 제36대 총무원장 취임 후 당시 원력을 되새겨 백만원력결집불사의 하나로 분황사 건립불사를 추진했다.

한국불교의 부다가야 거점도량인 분황사는 현지법인 물라상가와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2000평 대지에 조성됐다. 이날 낙성한 대웅보전은 263㎡ 규모의 한국 전통양식에 따라 건립됐다. 향후 964㎡ 규모의 2층 요사채 건물과 514㎡ 규모의 보건소가 추가로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부처님 성지를 찾는 한국 스님과 불자들이 부다가야 대탑에서 성지순례를 하고 수행할 때 머물며 정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나아가 인도 스님과 전세계에서 오는 스님과 불교도의 수계와 수행을 전담하는 수행도량으로도 운영될 예정이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에서 "불교가 한국에 전래된 지 2000년이 지났다. 그동안 땅길과 물길을 통해 부처님 성지를 참배한 수행자와 세계 곳곳에 한국불교를 전하는 원력보살이 적지 않았지만, 분황사처럼 종단 차원에서 원력을 모아 하늘길을 열고 백련을 피워낸 바는 초유의 일대사인연"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과 무더운 날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처님 가피와 원력으로 질병 피해와 안전사고 없이 불사의 원만회향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분황이라는 사명은 푼다리카, 최고의 연꽃인 백련을 의미한다. 처염상정의 표상인 하얀연꽃이 이곳 부다가야에 만개했다"며 "분황사는 순례자를 위한 안식처이자 수행자를 위한 더없는 아란야인 동시에, 참배와 신행의 공간,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도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황사 건립불사를 현지에서 총괄한 붓다팔라 스님은 환영사에서 "거룩하고 역사적인 분황사 건립불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대원력으로 시작됐고 설매 · 연취 보살과 통도사 청하문도회, 전국비구니회와 백천문도회를 비롯해 수많은 한국 불자들의 동참이 있었기에 원만회향할 수 있었다"며 "조계종이 세운 분황사는 한국불교 세계화와 인도불교 복원불사의 중심도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분황사 대웅보전 건립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물라상가 대표 붓다팔라 스님에게 종정상을 대리수여한 데 이어, 박철수 대목수와 이연수(단청), 조명제(감리) 씨와 인도건설회사 다라싱 대표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진형 여진불교조각연구소장은 붓다팔라 스님에게 표창패를 수여받았다.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은 "백만원력결집불사를 통해 부다가야에 건립된 분황사는 부처님 성지에서 한국불교를 알리는 근본도량이 될 것"이라며 "대웅보전 건립을 시작으로 수행관과 보건소 불사를 통해 인도 현지에서 포교와 복지를 통한 한국불교 세계화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황사 불사에 원력을 보태는 기금 전달도 잇따랐다. 해외특별교구장 정우 스님과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각각 10만 달러를, 중앙종회 종책모임 금강회가 2만 달러를,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과 적석사 주지 제민 스님이 각각 1만 달러를 전달했다.

분황사 대웅보전 준공식에 이어 보건소 착공식도 진행됐다. 보건소는 분황사 인근 주민들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전국비구니회가 운영 지원을 맡았으며, 보건소 건립을 위해 백천문화재단이 건립기금 3억 원을 후원했다. 보건소는 514㎡ 규모의 2층 건물로, 1층에는 진료실이, 2층에는 봉사자 숙소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분황사에 지역주민과 세계 순례자들을 위한 보건소를 건립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보건소의 원할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봉사 및 후원 운동을 전개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6·1 선거 후보들 불교계에 러브콜

콘텐츠 지원 강화 · 종교 화합 등
지역별 특색 맞는 정책제시 눈길

6 · 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불교계 표심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단순한 사찰방문이나 개인적 인연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전통문화 정책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불교공약을 내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인 5월 20일,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를 찾아 '전통문화 유지 및 지원'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김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 전통사찰 안정적 유지관리 지원 강화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주변 정비사업 지원확대 △전통문화 콘텐츠 지원 강화 △정부 공조사업에 대한 협조 △종교 간 화합을 통한 공존과 평화의 경기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1968년 김신조 북한 특수공작원 남파 사건으로 폐쇄된 우이령길 전면 개방과 종교 간 화합을 위해 종교지도자 간담회를 정례화 하는 내용 등을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5월 24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서울시내 사찰이 변한다'며 불교 · 전통문화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불심에 읍소했다.

송 후보는 이날 △전통사찰 지목정비 및 미등기 건축물 양성화,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 및 지목변경 제한에 대한 개선 등 불교계 산적한 현안 해결 △전통문화재로서 사찰 재정비 △연등회 등 전통문화 콘텐츠 지원 강화로 K-불교의 세계화에 기여 지원 △예산 신청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 △종교 간 화합을 통한 공존과 평화의 모범도시로 서울특별시 위상 강화 등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사찰 개보수 시 종교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문헌 종로구청장 후보는 제1공약으로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를 비롯해 청와대와 송현동, 종묘에 이르기까지 거대 문화관광 벨트를 구축해 문화와 예술의 본고장인 종로의 면모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강맹훈 성동구청장 후보는 지역 천년고찰 전통문화 콘텐츠를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옥수동 미타사를 중심으로 서울시 유적을 추진, 역사성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시민 누구나 찾아와 역사의 흔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노덕현 ·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코로나 이후 법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정 2022년 8월 24일(수) ~ 26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8월 24일, 수)	2일차 (8월 25일, 목)	3일차 (8월 26일, 금)
09:00~12:00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원리와 사례'	현대인을 위한 포교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뉴노멀 시대 온라인 법회 활용 방안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